

스웨덴의 산업의 제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차 철 환

1. 산업의 계약

산업의의 선임기준은 기업의 규모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접 산업의를 고용하고 있으나,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국가의 산업보건서비스기구에 소속되어있는 산업의가 primary health care수준의 산업보건활동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의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으로부터 선임받은 후에는 경영자나 노동자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보건서비스의 최고관리기관은 노동성(勞働省)이며 전문의가 소속하고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은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NIOH)이다.

현재 산업보건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은 Work Environment Act(1978년 시행)이며, 동법에 정하고 있는 산업보건서비스 대상자 중에는 선상(船上)작업자와 가내노동자를 제외한 군인과 13세 이상의 학생을 위시하여 각종 직업근로자가 산업보건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노동자에 대한 산업보건서비스활동에 의한 수혜율은 7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산업의의 실태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의 산업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 약 1,200명이 법정 전문산업의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자격은 9주간의 강습을 받은 후 NIOH가 인정하여 수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자격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능을 하고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산업의는 처음에는 얼마간 전문영역에 속하는 일반 임상의로서 임상경험을 거친후 산업의가 되는 코스를 밟는다. 그러나 산업의가 된 후에는 일반 임상의로서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산업의는 그 직책을 전담업무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외 다른 업무에 part time제로 종사하는 일도 적고, 또한 일반 임상의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적다.

최근, 산업의로서 기업의 산업보건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연간 1명도 나오지 않는 우려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산업보건활동 지원이 삭감된 것이 그 이유인 것 같다.

스웨덴의 경험이 풍부한 산업의들에 대하여 실행된 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산업의의 지위가 의사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젊은 의사들에게 인기가 없으며 장래성이 없는 분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에 있어서는 산업의



가 다른 의사집단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 설문지에서도 일반의 GP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산업의의 활동 내용

산업의의 직무는 우선 건강집단, 건강교육, 건강상담과 직업기인성 건강장해의 진단 등 「건강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건진에는 법적인 것으로 채용검진과 지정된 유해업무에 대한 것이 있다. 직장복귀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작성이나 예방접종실시도 중요한 업무이다.

임상적 치료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전체 업무시간의 50% 전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기인성 건강장해를 갖고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업무기인성 건강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더 상세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환자를 NIOH에 소개하는 것도 산업의의 중요한 직무가 되고있다.

「작업관리」관련 업무는 작업내용, 작업방법에 관한 감시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 작업형태나 각종 작업조건 뿐만아니라 작업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용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산업의의 중요한 직무라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작업환경관리」 업무로서 산업의는 작업환경의 계속적인 감시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근

로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복지, 배치전환, 직장의 적성 등 의학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기타

스웨덴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라 할 수 있다. 노동자도 노동재해 또는 일반적 상병에 의해 결근할때도 보장된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들면 상병수당(질병 및 상병기간 중에 소득보장)은 1991년까지 소득의 90%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한 상병수당이 이 나라 노동자의 높은 결근율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상병 일주일이상 요양시에는 상병수당 지급에 필요한 각종 상해진단서의 발행은 노재(勞災)인정을 위한 진단서 발행과 함께 스웨덴 산업의에게는 중요한 업무이며,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온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스웨덴의 산업보건활동이, 최근 국가에서 체계적인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나라 독자적으로 국민에 대한 관대한 사회보장체계를 실행한 결과 어떤 의미에서는 진퇴양난한 상태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